

고교학점제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 — 대학입시제도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김지혜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이 논문은 제71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0.6.13.)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고교학점제와 대학입학제도의 연계성 문제
- III.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제도가 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현재 고교 교육의 가장 큰 화두는 고교학점제이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이다. 교육부(2017ㄱ)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입시 중심에서 학생 성장 중심으로,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고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우리 교육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아닌 표준화된 산업사회 인재상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교육 패러다임에 의존하여 대학입시와 수능에 종속된 획일적 교육과정(문·이과 분반 등)과 국·영·수 위주 암기식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줄 세우기식 평가(9등급 산출), 서열화된 고교 입시로 인해 초·중학교 교육까지 왜곡되고 사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비롯된 고교교육 혁신 정책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2022년에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8년 8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교육부, 2018ㄴ)을 통해 2022년에 전

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과목선택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고교교육 혁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우려가 섞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빈(2017)은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유연한 진로탐색형’ 제도로 평가하였으며, 안상진(2017)은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자동 졸업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고 책임지는 공교육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고교체제 서열화를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교학점제의 필요성 및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도입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현, 2017, 2018)와 교육과정, 학생평가, 고교 학사제도, 고교 시설 및 교원, 대입 전형과의 연계성 등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김란주·서경혜, 2018; 박균열·엄준용, 2018; 서봉언, 2019; 이광우, 2018; 이상은·장덕호, 2019; 진영효, 2017; 한혜정, 2019; 홍후조, 2018)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고교학점제와 대학입학제도의 연계성 문제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고교학점제 도입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입학제도와의 호환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연계성 문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 및 교과 수업과 평가의 방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다가올 고교학점제로의 전환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고교학점제와 대학입학제도의 연계성 문제

1. 대학입학제도의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기본 방향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 신설을 통한 문·이과 통합,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 과목의 다양화,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한 학습량 적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수과목이 기존의 기본, 일반, 심화과목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일반·진로)으로 구분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진로선택과목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대학입학제도와의 연계성이 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고교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고교교육의 교육과정 및 평가와 긴밀히 연동되는 대입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학 입시는 과도한 경쟁으로 교육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예민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고교교육과정을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고교교육 혁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단계적 추진('18~'20)(고교체제 개편),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마련,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대입제도 개선)를 예고하였다(교육부, 2017 ㉠).

그러나 학생의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강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교육과정 확대 편성 및 진로집중과정 강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 도입 및 문·이과 통합, 과목선택권 확대가 그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선택권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도입·발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입시(수능)의 강력한 영향력 등으로 인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에 한계가 있었고, 지식전달식 수업·평가가 계속(교육부, 2017ㄱ: 6)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고교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뿐 아니라 입시·평가 제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교육부(2018ㄴ)의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은 대입전형 구조 개편(분야1), 수능 체제 개편(분야2), 학생부종합 공정성 제고(분야3), 대학별 고사 개선(분야4)이라는 네 가지 분야의 개편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대입전형의 공공성 및 책무성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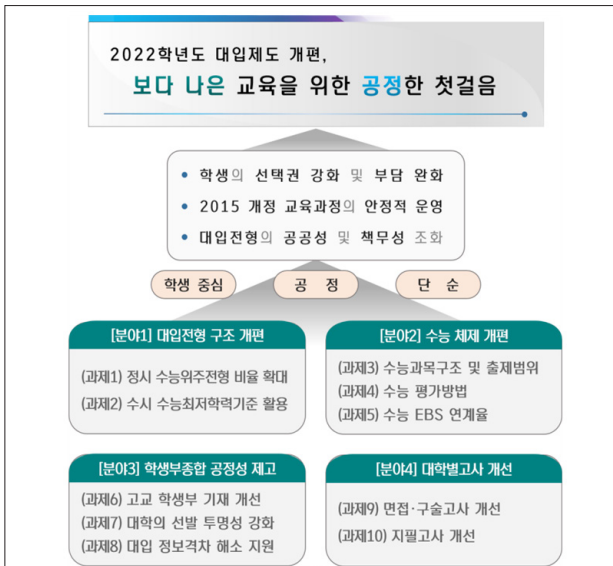
먼저, 분야1인 대입전형 구조 개편에서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으며, 수시 수능최저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 취지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였다.¹⁾ 분야2인 수능 체제 개편에서는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를 조정하고,²⁾ 수능 평가에서는 과목 쓸림이 있는 ‘제2외국어/한문’을

1) 이러한 권고는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사업 참여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입시전형을 평가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난을 겪는 대다수의 대학에겐 대입전형 운영비, 입학사정관의 인건비의 충당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총 700억원을 지원한 올해(2020년) 지원사업 선정의 필수 조건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시 전형(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리는 것이었다(김희원, 2020). 그러나 교육부는 2019년 11월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이 전체의 45% 이상인 16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23학년도까지 40%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2)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증시하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사회/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에 기하, 과학Ⅱ 과목을 출제한다(교육부, 2018ㄴ).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수능 출제 시 EBS 연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였다. 분야3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에서는 학생부 기재 내용 개선, 선발의 투명성 제고, 대입정보 격차 해소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 학생부 기재 내용 개선에서는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학기 당 1개 이내 총 6개까지 제공 가능) 및 자율 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학년 당 1개), 소논문(R&E)과 ‘방과후학교 활동’의 학생부 미기재, 항목별 특기사항의 입력 글자 수 축소(4,000자 → 2,200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에서는 대필·허위작성 등의 우려가 있는 자기소개서를 개선(4개 문항 5,000자 → 3개 문항 3,100자)하고, 교사추천서를 폐지하였으며,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에 외부위원 참여(변호사, 교사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서는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고 대입정보 제공 및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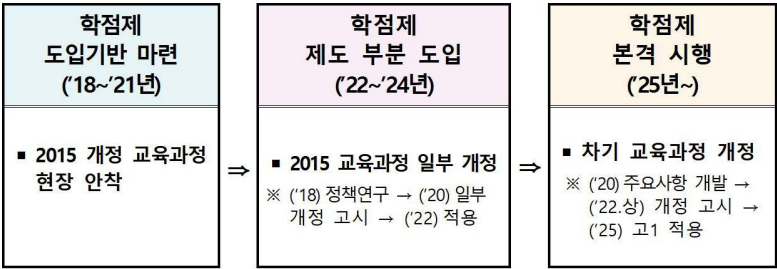
〈표 1〉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교육부, 2018L: 4)



이러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한편 학생부종합 전형을 포함한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단순화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2018ㄴ)는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고교학점제 도입 및 내신 성취평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표 2〉 고교학점제의 도입 단계(교육부, 2018ㄴ: 14)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2년 제도의 부분 도입과 ‘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의 단계를 밝힌 것이다. 먼저, 1단계(~2021년)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A-B-C 세 등급의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22학년도 대입)로 제공하는데,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없이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 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을 추가 제공한다. 2단계(2022~24년)에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학점제로의 전환(단위 → 학점), 적정 졸업학점·기준 등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3단계(2025년~)에는 새 교육과정 적용 및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범위를 전 과목에 확대함으로써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즉 25년 고1부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³⁾

〈표 3〉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기재 방식(교육부, 2018년: 15)

[학교생활기록부(현행)]					[학교생활기록부(개선)]				
과목	단위 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과목	단위 수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 수준 학생비율
고전 읽기	4	95/70 (10)	A (532)	1	고전 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정리하면, 22학년도 대입부터는 공통과목/일반선택 과목의 경우, “성취도(5단계), 수강자 수,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급”이,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표준편차, 등급이 없는 “성취도(3단계), 성취비율, 원점수/평균, 수강자 수”로 교과성적 기재 방식이 변경된다. 또한 현재의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계획에 따르면,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인 성적 기재 방식이 22학년도 대입부터는 “상대평가(공통, 일반 선택)+절대평가(진로 선택)” 방식으로, 성취평가제가 전 과목으로 확대되는 28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과목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재될 예정이다.

2. 대학입학전형의 개편 방안 및 문제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각 대학의 입학기관에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수용하는 한편, 각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각 대학마다

- 3)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중장기 대학입시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수능의 경우 학교 교육 혁신과 연계하여 논·서술형 도입하고, 내신의 경우 내신 성취평가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교육부, 2018년 7)

추구하는 인재상과 전형 방식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및 대응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대학입학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표 4〉 표준 대입전형 체계(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 • (학생부 종합) 비교과, 교과, 면접 등(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 가능)
	논술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등
	실기/실적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등
	실기/실적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수시의 학생부위주 전형과 정시의 수능위주 전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생부위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 전형과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초소양함양을 목표로 하는 공통과목과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고교별로 학교 유형 및 교사 수 등의 여건에 따라 선택과목의 개설 현황(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개설과목 수, 구성 비율, 이수단위) 및 학생의 선택권 범위가 상이하며, 학생별로 진로선택과목의 선택 개수(기본 3개 이상 이수)가 다르기에 평가 방식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게다가 고교학점제의 성취평가제가 실시된다면 고교 내신의 평가에 대한 방식 크게 역시 달라질 것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의 정량적 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전형이므로, 22학년도 입시에서 진로선택의 반영 유무, 반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

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진로선택 교과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입에서의 진로선택 교과와 반영이 필수적이나 절대평가인 3단계의 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에 대한 대학 측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2022학년도 시행계획안의 교과전형의 반영 과목 및 성적 산출 방식을 살펴보면 대학들의 이러한 고민이 읽혀진다. 수도권 주요 30개 대학 중 14곳은 진로선택 과목을 미반영하며(이동수, 2020), 반영하는 대학들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성취도에 점수를 부여하여 활용하는 경우, 원점수·평균·성취 비율 등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로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⁴⁾ 또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평가방식이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학생부교과전형이 현행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⁵⁾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적 평가방식으로 개인의 역량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타인과의 비교에 의존하는 줄 세우기 식의 경쟁을 완화시켜주며, 특정 지역이나 학교 유형을 떠나 다양한 학생들이 입학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고교와 대학이 평가권을 나눈 장점을 지닌 전형이다(권오현·박은지·안성환·유지연·진동섭·이상수·김승환, 2017: 20).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지원학과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학업역량 등을 평가해 왔기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학생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권이

4) 예를 들어, 2022학년도 연세대,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들이 이수한 진로선택과목(성취도 교과)의 성취도 점수를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한다면, 한양대의 경우 반영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중 3개 과목만의 성적을 등급의 환산점수로 산출하여 반영한다. 또한 성균관대의 경우, 진로선택과목 및 전문교과과목의 성적을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5) 안상진(2017)에서는 고교내신이 절대평가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부 교과전형 운영이 어려워지기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상당 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9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2022학년도 지역균형 선발인 학생부교과 전형을 1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확대된다면 개인의 역량을 보다 잘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임진택·이정림·김유겸·공자원·박정선·한정호 외, 2020: 16).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른 고교별 교육 환경의 차이, 고교-대학 연계교육(articulation)⁶⁾을 위한 선택과목과 지원 전공/계열의 적합성 평가, 소규모 과목 및 공동교육과정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야 하며, 이는 각 대학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부(2019)의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심층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균열을 보이는 지점이 있다. 교육부(2019)는 2019년 10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⁷⁾ 후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22~'23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 폐지('24학년도), 교사추천서 폐지('22학년도) 및 자기소개서의 단계적 폐지('22~'23학년도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24학년도 폐지)를 다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제2차 대입공정성강화 방안(교육부, 2020)에서는 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1학년도부터 대입전형자료(학생부)의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및 고교 프로필 전면 폐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은 다양한 학생활동을 정성 평가한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고교 블라인드 평가는 고교에 따른 유풀리를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학생이 처한 고

6) 고교-대학 연계교육(articulation)은 중등과 대학 단계 사이의 교육 내용이나 활동이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계속 이어짐을 의미한다(권오현 외, 2017). 고교-대학 교육과정의 연계는 양자가 학제 등의 차이로 인한 결절·중복·비약·누락 등이 없도록 적성과 희망전공을 고려하여 부드러운 연속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김대석, 2011: 11).

7)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조사단을 구성하여(2019.10)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결과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 단계부터 합격, 등록단계까지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대비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서 서울지역의 합격자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육환경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고교 프로파일은 고교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고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자료로서, 각 학교별 실제 교육과정 운영 현황,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예를 들어, 연간 학교 내 대회 개수 및 참여인원, 수상 인원)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에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⁸⁾ 또한 자기소개서는 사실과 결과 중심의 학생부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지원자의 진로 모색의 과정 및 노력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라 할 수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진로 모색 과정에서의 교과 선택 방향, 진로 변경 시 그 사유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전국대학교입학처장협의회에는 2월 16일 “고교 프로파일과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폐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우려가 있어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오푸름, 2020). 대학입시에 있어 지역, 문화적 배경, 학교환경, 가정환경, 성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성(fairness)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정성 강화가 대학입시전형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진다면 그 제약이 도리어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정시의 수능위주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2학년도에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된다.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기본 원칙으로 반영한 것이다.

8) 교육부는 21학년도의 경우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통해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활동을 섬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5〉 2021,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비교(교육부, 2018년: 6)

과목(영역)	2021 수능	2022 수능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언어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가형(이과): 수학I,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수학I, 수학II, 확률과통계	공통: 수학I, 수학II 선택: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I, 영어II	영어I, 영어II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탐구	일반계: 사회/과학 계열 중 택2 * 사회: 9과목 * 과학: 8과목(과학I·II) 직업계: 직업계열 중 택2	일반계: 사회/과학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9과목 * 과학: 8과목(과학I·II) 직업계: 전문공통(성공적인직업생활) + 선택(5개 계열 중 택1)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1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9과목 중 택1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 노란색 음영: 절대필가

그러나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편된 2022학년도 수능은 문·이과의 칸막이를 없애고 창의융합적 인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고교-대학 간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한 56개 학교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 이과 모집 단위에 ‘미적분’, ‘기하’ 등 이과 수학과목을 지정했고, 62개 학교는 이과 모집단위에 과학탐구 과목을 지정했다. 이들 학교를 제외한 전국 70~80% 가량의 4년제 대학에서는 문과형 수학인 확률과통계나 사회탐구 과목으로 수능 시험을 치르거나 심지어 수학 성적 없이도 이과 모집 단위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학중점학교나 지역거점 일부 일반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고 교실에서 제대로 된 이과 수·과학 교육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으며(김희원, 2020), 이는 대학의 서열화, 이공계 분야의 학업 역량 약화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또한 수능에서는 각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에 난이도가

높거나 응시자가 적어 등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의 기피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의 호불호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임진택 외(2020)에서는 대입을 앞둔 수험생은 ‘학종-수능 딜레마’, ‘학종-내신 선택 딜레마’라는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되 지원 학과(계열)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능 성적만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응시인원이 많고 위계(난이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학생부종합이나 수능이나에 따라 이수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학종-수능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되 지원 학과(계열)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생부 교과(내신) 성적만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수강인원이 많고 위계(난이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학종-내신 선택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정시 확대(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 비율 40% 확대) 기조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앞둔 대학입학제도의 개편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중 일부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고 여겨진다. 선택형 교육과정의 확대가 문·이과 분리, 문·이과 완전 편식에서 더 나아가 문과 내, 이과에서도 일부 과목으로의 편식으로(진영호, 2017: 164) 이어지지 않으려면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연계성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할 것이다.

III.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제도가 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제도는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 편성 및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입시험의 개편이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을 어떻게 변모 시키게 될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 학습에 대한 ‘균형 학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교육과정에는 기초 교과 영역에 한국사(6단위 이상)가 포함되어 있어 총 이수 단위의 50%는 90단위에서 84단위로 줄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였다(교육부, 2017L: 27). 이에 따라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국어 교육의 경우, 공통과목인 〈국어〉, 일반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진로 선택 과목인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발표 이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들을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진로 계열을 조사하여 학생별 적성과 학업 역량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고교-대학 간 연계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학생별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는 대학의 학과별 선택과목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⁹⁾ 그러나 대학에서는 각 전공별로 고교 단계에서 이수를 필요로 하는 과목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학 전공의 성공적 이수는 관련 교과목의 성취도뿐 아니라 보편적 학업능력, 전공에 대한 관심 등에 복합적으로 관련되며,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들의 내적인 연관성이나 위계관계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권오현, 2017: 23). 또한 대학 측의 입장에서는 학과별 선택과목 가이드라인이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획일화하거나 입시에 실질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국민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공동) 등의 대학에서 진로진학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북에서는 진학을 위한 교과를 한정하지 않으려는 각 학교의 고민이 담겨 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2018/2020)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선배들의 이야기 형식으로 각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각 전공 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의 과목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필요한 것들,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법 등의 조언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모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열별로 일부 학과만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전공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9) 학생들의 진로 모색 및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생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 북”,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 안내서”, 전남교육청에서는 “고교 선택 과목 길라잡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과목백서”를 발간하였다.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가 아니라
언론'정보'학과입니다

- KOO 선배 -

— 앞서 말한 친구의 내용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정보학은 크게 1개 교과, 3개 과목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1개 교과가 **국어 교과**라는 것은 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론정보학과에 와서 가장 많이 한 것은 **글쓰기와 발표**입니다. 거의 모든 수업에서 논문을 읽고 요약해 오라는 과제를 받았고, 거기에 나의 의견을 추가하여 발표해야 했습니다. 익숙하게 글을 쓰려면 **<독서>**, **<문학>** 등 읽기 자료를 많이 접하는 과목을 통해 **글을 많이 읽어 봐야 하고**, 더 수려한 글을 쓰려면 **<화법과 작문>**을 통해 **글쓰기 역량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인문대, 사회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언론정보학과를 지망한다면 **국어와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언론인이란 가장 하에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필수**이고, **맞춤법 준수도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국어와 공부의 목표를 시험 문제를 맞히는 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심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쉬운 시작은 하나의 지문도 흘려보내지 않고 **완벽히 이해한 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림 1〉 서울대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2020: 12)

명지대학교·국민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가 공동으로 낸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선택교과목 가이드북」(2020)에서는 4개 대학 통합 계열별 선택 과목 가이드와 각 대학별 모집단위의 추천 선택과목을 정리하고 있다. 본 안내서에는 선택 과목 가이드에 제시되는 교과목들이 4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수이수 과목이 아니며, 이러한 교과목을 이수했다고 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유리하다거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1) 4개 대학 통합 계열별 선택 과목 가이드

※ 4개 대학에서 중분류를 기준으로 계열과 전공을 학습하는데 있어 연계가 많은 과목을 굵게 표시하였음

4개 대학 통합 계열별 선택 과목				
대분류	중분류	모집단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인문·사회·계열	N.C.E*	명지대 전공자유학부(인문) 융합전공학부(인문) 서울여대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	독서, 문학, 수학 I, 확률과 통계, 영어 I, 영어 II, 세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진로와 직업, 제2외국어 I, 한문 I, 철학, 논술	사회문제 탐구
	경영·경제	명지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경영정보학과, 국제통상학과 서울여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숭실대 경제학과, 글로벌통상학과, 경영학부, 회계학과, 법치중수기업학과, 금융학부 국민대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경영정보학부, 재무금융·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재무금융·회계학부 회계학전공, KJ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기업경영학부(미인)	독서, 화법과 작문, 문학, 언어와 매체,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 I, 영어 II,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정보, 제2외국어 I, 한문 I, 실용경제, 심리학, 논술	기하, 경제수학, 사회문제 탐구, 창의경영, 영어권 문화, 제2외국어 II, 지식 재산 일반, 진로영어, 수학과학 탐구
	교육	서울여대 교과심리학과 국민대 교육학과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영어 I, 영어 II, 생명과학 I, 세계지도,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진로와 직업	사회문제 탐구, 생활과 과학

〈그림 2〉 명지대학교·국민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선택교과목 가이드북」(2020: 13)

숙명여자대학교의 「진로진학을 위한 학과 탐색 가이드」는 대학알리미의 표준분류에 따른 유사 계열 범주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해당 학과 공부에 필요한 교과 영역 및 권장 이수 교과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과와 관련 있는 교과목이 많이 들어 있는 교과 영역을 색의 진하기를 통해 표시하고, 교과목의 권장 정도를 글자의 크기 및 굵기로 정리하고 있다.

화학·생명과학·환경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식품영양학과				
국어-일반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일반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일반 영어 원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한국사Ⅰ, 세계사Ⅰ,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 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학-일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국어-진로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진로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진로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어 문학 읽기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진로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일반/진로 체육, 운동과 건강	예술-일반/진로 음악, 미술, 연극	기술·가정-일반/진로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일반/진로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중국어Ⅰ, 그 외 제2외국어Ⅰ	한문-일반/진로 한문Ⅰ
스프츠 생활, 체육 탐구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농업 생활 과학, 공학 일반, 창의 융합, 생활 문화와 기술, 가전과학, 지식 재산 일반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중국어Ⅱ, 그 외 제2외국어Ⅱ	한문Ⅱ
생명시스템학부 생명과학Ⅱ, 화학Ⅱ 등의 교과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자식을 학습하는 데에는 영어 이해와 영어 구사 능력, 유전정보와 생명현상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수학의 지식이 들어 필요하고, 나아가 빅데이터를 다루는 생물정보학, 실험데이터를 해석해야 하는 실험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코딩 지식, 통계학적 지식까지 배우면 입학 후 전공지식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림 3〉 숙명여대, 「진로진학을 위한 학과 탐색 가이드」(2019: 15)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국어과 과목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학입학시험 중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전공 과목과 연계된 선택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과 선택과목들은 대학의 전공영역과 얼마나 많은 연계성을 지니고 있을까. 앞서 살펴본 대학들의 선택과목 가이드북에서 국어과 선택과목을 추천한 학과 혹은 계열(중분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대학선택과목 가이드북의 전공별 국어과 선택과목 추천 현황

과목	대학					
	서울대	명지대	국민대	서울여대	송실대	숙명여대
화법과 작문	언론정보학과 자유전공학부	언어·문학 인문학 경영·경제 사회과학 수학·물리·천문·지구 전기·전자·컴퓨터 재료 연극·영화	사회과학 언어·문학 교육	언어·문학 사회과학	언어·문학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영·경제 교육 생활과학 화학·생명 과학·환경
독서	언론정보학과 자유전공학부	언어·문학 인문학 경영·경제 법학 사회과학 N.C.E. ¹⁰⁾ 생활과학 전기·전자·컴퓨터 건설 산업·안전 재료 기계 항공·교분자·에너지 무용·체육 연극·영화 미술 음악	사회과학 언어·문학 교육	언어·문학 인문학 경영·경제 사회과학 교육 N.C.E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 자연) 수학·물리· 천문·지구 화학· 생명과학·환경 농림·수산 생활과학·농림· 수산 전기·전자· 컴퓨터 무용·체육 미술	인문학 언어·문학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영·경제 교육 생활과학 화학·생명 과학·환경 수학
언어와 매체	중어중문학과 언론정보학과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N.C.E (인문/자연) 연극·영화 N.E.C. (바둑학과)	사회과학 언어·문학 미술	언어·문학 사회과학 교육	언어·문학 사회과학	언어·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영·경제 교육

10) N.C.E: Not Classified Elsewhere(달리 분류되지 않는 학과), 명지대의 경우 전공자유학부(인문), 융합전공학부(인문)

문학	언론정보학과 자유전공학부	언어·문학 사회과학 N.C.E 연극·영화	사회과학 언어·문학 미술	언어·문학 인문학 경영·경제 사회과학 교육 N.C.E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 자연) 수학·물리· 천문·지구 화학·생명 과학·환경 농림·수산 생활과학· 농림·수산 전기·전자· 컴퓨터 무용·체육 미술	언어·문학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법학 경영·경제 교육 생활과학
심화 국어		언어·문학 법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언어·문학	사회과학 교육	인문학 언어·문학 사회과학	언어·문학
고전 읽기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언어·문학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인문학 언어·문학	언어·문학
실용 국어						언어·문학

* 가이드북의 제시 성격에 따라 서울대는 전공별, 다른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공표준분류체계의 중분류를 제시함

** 명지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의 경우, 중요도를 진하기로 표시함

각 대학에서 편찬한 선택과목 가이드북을 살펴 보면, 주로 중분류 기준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국어과 일반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 가이드북의 경우, 선배들이 선택과목을 추천하고 있기에 선택과목이 전공분야에 연계성이 있기는 하나 주관적일 수 있다. 명지대의 경우, 전 분야에서 <독서> 과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서울여대에서는 <독서> 및 <문학>을 기본 선택과목으로 설정하고 있고, 국민대와 숭실대는 국어과 선택과목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숙명여대의 경우도 주로 인문, 사

회계열의 분류 학과에서 국어과 과목을 선택하고 있으나 화학·생명과학·환경 분야와 수학 전공에서 일반선택 과목을 권고 과목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전공 선택 가이드북을 살펴 보면, 대학별로 전공에 필요한 선택과목 방식이 상이하며, 그 내적인 연관성 역시 정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교와 대학 간 교육과정 및 전공에 대한 연관성이나 위계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보다는 대학 입학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 듣게 될 수 있다. 고교 학점제의 도입으로 학생들이 교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사회계열, 이공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국어 교과의 선택을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한 정도로 최소화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공통(<독서>, <문학>)’과 ‘선택(<화법과 작문> 중 <언어와 매체> 중 택1)’으로의 구조 개편은 국어 교과의 비중 축소 편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여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인천시 소재 S고의 2018학년도 교과목 편성표를 살펴 보면,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과목을 모두 학교 지정 과목으로 개설하고, <심화 국어>와 <고전 읽기>를 학생 선택 과목(진로 과목 7과목 중 택1)으로 개설하였다. 그러나 2019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에는 <국어>, <문학>, <독서>, <심화 국어>를 학교지정 과목으로 개설하고, <고전 읽기>를 기초선택1(<고전 읽기>, <진로 영어>, <심화 수학Ⅱ> 3과목 중 택1),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을 기초선택4 영역(택1)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 소재 K고의 2020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를 살펴보면, <문학>과 <독서>가 학교 지정 선택과목이며, <고전 읽기>가 2학년 선택과목(총10개 선택과목 중 학기별 3과목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 국어>가 3학년 선택과목(총31개 과목 중 학기별 8과목 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다.

현재 변경되고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볼 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는 대학의 진로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수학능력시험의 구성이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수능시험의 응시인원 및 난이도에 따라 선택률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된다. 결국,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전형의 변화로 국어과 선택과목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라 몇몇 학교들의 경우, 예술 교과군의 진로(전문) 교과로 <고전문학감상>, <현대문학감상>, <소설 창작>, <시 창작> 과목 개설하고 있어 예술로서의 문학 감상 및 창작 교육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7〉 K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중 3학년 선택과목표(2020학년도 입학생 대상)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구분	교과영역	교과(과목)유형	세부교과목	기준단위	운영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이수단위	필수이수단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3학년 선택	국어	국어	일반 화법과 작문	5	6									
			일반 언어와 매체	5	6									
			진로 심화 국어	5	6									
		기초 수학	일반 미적분	5	6									
			일반 확률과 통계	5	6									
			진로 심화 수학 I	5	6							전문 I		
		영어	진로 수학과제 탐구	5	6									
			진로 경제 수학	5	6									
			일반 영어 II	5	6									
	제·교육·예술	영어	일반 영어 독해와 작문	5	6									
			진로 진로 영어	5	6									
			진로(한문) 체육 전공 실기 기초	5	6									
		예술	진로 음악 전공 실기	5	6									
			진로 미술 전공 실기	5	6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5	6					24 (택8)	24 (택8)			
		사회	진로 미술 감상과 비평	5	6									
			진로 현대문학 감상	5	6									
			진로(한문) 시 창작	5	6									
	탐구	사회	일반 윤리와 사상	5	6									
			일반 동아시아사	5	6									
			일반 사회·문화	5	6									
			일반 한국지리	5	6									
			일반 정치와 법	5	6									
			진로 여행 지리	5	6									
		과학	진로 고전과 윤리	5	6									
			진로 사회문제 탐구	5	6									
			진로 물리학 II	5	6									
			진로 화학 II	5	6									
			진로 생명과학 II	5	6									
			진로 지구과학 II	5	6									
			진로 생활과 과학	5	6									

실례로 K고의 경우, 예술 교과군에 <현대문학 감상>과 <시 창작> 교과를 개설하고 있다. 현재 문학 창작 및 감상 교과의 교과서가 부재하기에 담당 교사가 교재를 만들어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중 고교학점제와 대학입학제도의 연계성 문제를 살펴 보고, 이를 기반으로 다가올 고교학점제로의 전환이 국어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실행을 예고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고교 교육과정 및 평가 방식, 교사 임용제도 등 고교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그간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학생들을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에 뒀으로써 우리 교육의 획일적이며 수직적인 구조를 개방적이며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모든 교육 제도를 무화시킬 수 있기에 고교학점제 실행을 앞두고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입학제도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편성 및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입학제도 개정과 2019년, 2020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은 고교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와 균열을 보이는 지점이 있으며, 일부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문·이과의 칸막이를 낮추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을 목적으로 했으나, 한 축으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기초 교과에 대한 학습 편중으로 문·이과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 축으로는 고교-대학 교육의 연계성을 도리어 약화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기초 교과와 개설 과목 단위 및 필수 이수 단위(각 10단위)가 낮아지고, 탐구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대학의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할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기피하고, 이공계열에 진학할 학생들은 국어, 영어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또한 수능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의 전공 분야와 상관 없이 유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제도의 개편 방향은 국어교육의 역할과 지향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내 국어 교육의 비중은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수학능력시험의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개설 및 수강 학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학 감상 및 창작 관련 교과가 다양하게 개설될 수 있다.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 사고 교과, 문화 교과로서의 다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국어 능력은 모든 교과를 이해하는 기본이자 의사소통 및 사고를 심화시키고, 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및 새로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어교육의 약화 및 과목 편중 현상과 함께 고등학교 국어교육의 성격과 그 역할에 대한 국어교육계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국어교육은 기존의 다중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기초 과목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진로 교과로서의 역할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국어과 과목들의 대학 전공과의 연계성 및 위계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술 교과로서의 문학 감상 및 창작 교과서의 개발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여러 고교학점제 선도·연구 학교에서는 예술·체육 영역의 진로(전문) 교과로 〈고전문학 감상〉, 〈현대문학 감상〉, 〈소설 창작〉, 〈시 창작〉 수업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고등학교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문학 창작 및 감상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서 개발을 통해 예술로서의 문학 교과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와 함께 시행될 내신의 성취평가제 및 수학능력시험의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교육부(2018 7)는 학점제 기반 중장기 대학입시제도 방향에서 내신 성취평가제, 수능에 논·서술형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국어교육에서도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평가 방식을 연구하고, 나아가 내신 평가와 수학능력시험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0.8.1. 투고되었으며, 2020.8.21. 심사가 시작되어 2020.9.1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2017ㄱ),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7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8ㄱ),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8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0ㄱ), 『2020 제 2차 대입공정성강화 과제별 정리』,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0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대입전형자료(학생부) 온라인 제공 개선 계획 안내』, 세종: 교육부.
- 권오현·박은지·안성환·유지연·진동섭·이상수·김승환(2017), 『(정책연구-2016-위탁) 진로·진학과 연계한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김대석(2011), 「대입시 현황과 대학 중도탈락률 분석을 통해서 본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란주·서경혜(2018),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과정연구』 36(1), 113-138.
- 김정빈(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초 논의」, 『교육비평』 40, 10-43.
- 김희원(2020. 4. 29.), 56개 대학만 ‘이과형 수학’ 요구...서울 9개 대학 수능 비중 40% 넘겨, 서울경제, 검색일자 2020. 5. 30., 사이트 주소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NVQXLHY>.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표준대입전형 체계 및 교육과정 편성표, 검색일자 2020. 6. 10., 사이트 주소 <http://www.adiga.kr>.
- 명지대학교·국민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송실대학교(2020),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선택교과목 가이드북」, 서울: 명지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송실대학교 공동 출판.
- 박근열·엄준용(2018),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탐색」, 『교육학연구』 56(4), 1-29.
- 서봉언(2019), 「고교학점제가 던진 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33-52.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2018/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 서울: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2019), 『진로진학을 위한 학과 탐색 가이드』,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 안상진(2017),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평가 혁신」, 『교육비평』 40, 76-98.
- 오품름(2020. 2. 16.), 대학입학처장들 “고교 프로파일·학생부 비교표 폐지 철회해야” 조선에듀, 검색일자 2020. 5. 30., 사이트 주소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4/2020021402934.html.
- 이광우(2018), 「고교학점제 실행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요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

- 연구』 18(12), 543-567.
- 이동수(2020. 6. 1.), 수도권大 절반 진로선택과목 미반영...교과전형 영향 미미, 세계일보, 검색일자 2020. 6. 2., 사이트 주소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7519304?OutUrl=naver>.
- 이상은·장덕호(2019),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나타난 쟁점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109-136.
- 이현(2017),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교육비평』 40, 44-75.
- 이현(2018),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비평』 41, 77-144.
- 임진택·이정림·김유겸·공자원·박정선·한정호·차정민·임태원·이석록·김창민(2020),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공동 연구: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진로 선택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서울: 경희대학교.
- 진영효(2017), 「(토론문) 고교학점제와 선택형 교육과정」, 『교육정책토론회집』 1, 148-166.
- 학교알리미, 검색일자 2020. 6. 10., 사이트 주소 <https://www.schoolinfo.go.kr>.
- 한혜정(2019),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관련 쟁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37(2), 53-81.
- 홍후조(2018), 「고교 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699-724.

고교학점제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

— 대학입시제도와 연계성을 중심으로

김지혜

현재 고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고교학점제이다.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학생 성장 중심의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꾀하는 고교 혁신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중 고교학점제와 대학입학제도의 연계성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다가올 고교학점제로의 전환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를 고찰해 보았다.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제도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편성 및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교육부(2018)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과 내신 성취평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5년부터는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 범위를 전 과목에 확대함으로써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입학제도 개편과 2019, 2020년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은 고교 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와 균열을 보이는 지점이 있으며, 일부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또한 대입제도의 개편과 고교학점제는 국어교육의 위상 및 비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수능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공통(〈독서〉, 〈문학〉)’과 ‘선택(〈화법과 작문〉중 〈언어와 매체〉 중 택1)’으로의 구조 개편은 국어 교

과의 비중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 사고 교과, 문화 교과로서의 다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및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어교육의 약화 및 과목 편중 현상과 함께 고등학교 국어교육의 성격과 그 역할에 대한 국어교육계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국어 교육은 기초 과목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진로 교과로서의 역할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 교과로서의 문학 감상 및 창작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와 함께 실행될 내신의 성취평가제 및 수학능력시험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고교학점제, 대학입학제도, 고교 교육과정, 학생의 과목 선택권, 국어교육, 국어 교과, 진로 교과

ABSTRACT

Korean Language Education Tasks according to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 Focusing on the Linkage with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Kim Ji-Hye

Currently, the most severe issue in high school education is its credit system. This system, which will be implemented in 2025, is a high school innovation policy that seeks flexible and individualized education focused on student growth. This is done by escaping from the uniform entrance-oriented education, expanding student's options, and diversifying curriculums.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linkage problems between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college entrance, among other issues surrounding the credit system, and the related challeng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high school credit and college entrance systems have a direct impact on high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student's selection of subjects. Therefore, the Ministry of Education(2018) announced plans to reorganize the college entrance system and improve its performance evaluation scheme, in order to prepar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eginning in 2025,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ill be implemented by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chievement evaluation scheme to all subjects. However, the reorganization of college entrance and evaluation systems seems to conflict with the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strengthen the fairness in the college entrance announced in the 2019. In some ways, it is also a risk that functions as an obstacle to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normaliza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In addition, the reorganization of college entrance and high school

credit systems will greatly influence the status and for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articular,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into “Common subject (<Reading>, <Literature>)” and “Elective subject (<Speaking and Writing> and <Language and Media>)”, in the Korean language section of the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leads to a subject’s decrease in weight. Korean language subject has multiple identities as a tool subject, as well as a thinking and cultural subject.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a revised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fully discuss the nature and rol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high school, along with the weakening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ubject bias. The teaching of Korean language should not only provide a basic education, but also have a career subject role.

KEYWORDS High School Credit System, College Entrance System, High School Curriculum, Student’s Selection of the Subject,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Subject, Rol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